

### 총회의원선거 감시 나선다

교단자정센터, 금품 제공·수수 제보 접수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가 14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금품제공·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9월 27일 '사회범죄 및 특정 부정부패 행위 출가자의 조계종 핵심공직 진출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교단자정센터는 개혁의원·요구 위주의 활동을 중단하고 부패적결·사회범죄자 교단 퇴출 등 교단자정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 14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뇌물수수, 당선

수제 등 청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벌인다.

이를 위해 교단자정센터는 금품수수 등의 감시하기 위한 제보전화(02-2278-3671)를 설치하고, 제보가 접수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사회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단의 자정능력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단자정센터는 부적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뜻있는 출가수행자·재가불자 지도자 공개연석회의를 제안했으며, 종단에 대해서도 자격 심사 강화, 총무원장의 청정선거 의지 천명 등을 촉구했다. 박봉영 기자

### 이항우 교수·보광 스님 총장후보 선출

동국대 교수회·직원노조

동국대 교수회 및 직원노조의 차기 총장 후보자 선거 결과, 이항우 교수(경찰행정학과)가 1위, 보광 스님(선학과)이 2위를 차지했다.

제16대 총장후보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재)는 "전체 유효 투표 중 176.2표(30%)를 획득한 이항우 교수가 1위, 149.8표(25.3%)를 획득한 보광 스님이 2위를 차지했다"고 9월 28일 발표했다.

투표에는 서울캠퍼스 교수 298명 중 257명(86.2%)이, 직원 245명 중 209명(85.3%)이 참여했다. 경주캠퍼스 또한 교수 269명 중 241명(89.5%)이, 직원 131명 중 126명(96.1%)이 참여하는 등 서울 및 경주 총 재직인원 943명 중 833명(88.3%)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원칙적으로 이번 투표로 차기 총장에 추천된 후보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또 "교수회는 임의 단계로서 교수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막을 생각은 없다"고 밝혀 교수회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동우 기자

새터민 통일체육축전

정토회 주관, 15일

남한에 정착한 9000여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의 최대 체육축재인 '통일체육축전'이 10월 15일 서울 양천구 양강중학교에서 열린다.

행사 주관은 대북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과 정토회.

올해로 4회째인 통일체육축전은 새터민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행사 준비에 참가하는 등 새터민들의 명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행사에도 1000여명의 새터민이 참가해 한겨레 한마음 체육대회, 새터민 노래자랑 등을 펼친다. (02)587-8754 박봉영 기자

권오춘 이사장, 동국대에

13억 상당 부동산 기증

초려당 장학재단의 권오춘 이사장이 용인소재 시가 13억 상당의 부동산과 소장품을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했다. 1961년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권 이사장은 2004년 12월에도 서울 양재동 소재 오피스텔 5채(시가 12억)를 기증하는 등 총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국대에 기증했다.

동국대측은 "이번에 기증받은 부동산을 권 이사장의 뜻에 따라 학교 교육,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권 이사장 이름을 딴 기념강의실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환경보존은 불자들의 의무”

‘불교환경의제21’ 선포... 284개 실천과제 자세히 제시

“절에 가는 날을 승유차 안타는 날로 정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간단하게 요리하겠습니다.”

생명존중과 환경보존의 불교사상을 사회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범종단적 실천운동 ‘불교환경의제21’이 선포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9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을 열고, 2003년부터 4년여간 준비해 온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을 다짐했다. 또 모든 사람과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침으로 널리 알리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우리의 지나친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환경재앙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불교환경의제를 실천하는 일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유정·무정의 일체중생에게 선한 공업을 짓게 해 그 공덕으로 궁극의 해탈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불교환경의제21은 8개 분야의 기본실천목표를 선정, 각 목표별로 종단, 사찰, 사부대중이 실천해야 할 86개 기본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환경보존 실천운동이다. 또 이를 보다 심화해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생활 만들기 △수행



지관·수경·해자 스님 등 불교계지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치범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9월 27일 환경의제21의 실천사업인 빙그릇운동에 동참 서약했다.

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284개 실천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불교환경의제21 실천운동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예코넷,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등 불교환경단체가 주관해 종단, 사찰, 사부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특히 사찰생태연구소의 사찰생태 모니터링사업과 불교환경연대의 빙그릇운동, 환경5계 제정·실천,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친환경공양미 실천운동 등은 공동실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날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사업

가운데 하나인 빙그릇운동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이치범 환경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선우영녀 빙그릇운동 홍보대사 등이 동참을 서약했다.

지관 스님은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에 앞서 환경위원회 3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3기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사회부장 지원,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이도원 서울대 교수, 이병인 부산대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 7대종교예술제 시민축제로

‘나눔·기부문화 확산’ 주제... 21일 서울광장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대 종교계가 참여해 열리던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로 옷을 갈아입고 10월 21일 서울광장에서 선보인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이하 종지협)는 “지난 1997년부터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개최해왔던 종교예술제를 올해부터 종교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시민문화축제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제10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관람 위주의 기존 프로그램 대신 체험마당 위주로 편성된다. 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종교문화축제의 취지를 알리는 ‘무지개콘서트’가 장식한다. 콘서트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대거 출연해 ‘생명, 평화, 사랑의 노래’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터민과 이주노동자들의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02)720-8776 박봉영 기자

### ‘우물 파주기’ 몽골 간다

지구총공생회, 울란바토르 외곽 12개 마을서

지구총공생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3세계 우물파주기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구총공생회(대표 윌주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6년 테마기획으로 실시한 최빈국 및 해외동포 밀집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지구총공생회의 몽골 빈민촌 마을공동우물 파주기 사업 ‘Very Well’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9월 2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억2천만원.

지구총공생회의 제3세계 우물파주기 프로젝트는 지난해 환경재단이 실시한 공모에도 선정돼 캄보디

아 캄푸에서 94개의 우물을 파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인기 해외구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Very Well’ 프로젝트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외곽지역 빈민촌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주는 공동우물 건설사업이다. 공동우물은 등과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과 함께 건립된다. 지구총공생회는 보호시설 내부에 도서관을 만들어 한국어와 몽골어, 영어 등 서적을 비치하고, 세계문화를 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02)455-9596 박봉영 기자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절차 간소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 지침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기준안이 시·도지사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공사 허가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3일 내로 단축되게 됐다.

문화재청 건조물과 안정열 과장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번 지침안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 목탁소리

뮤지컬 ‘갯바위’가 9월 25일 그 베일을 벗었다. 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하던 형(이현 스님)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10여 년 간 폐인처럼 산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엮은 전반부는 호 사상을 강조한다. 감동을 장담했다. 만 관객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 관객의 “재미가 없으면 감동이라도 줘야지!” 라는 질책의 말은 관객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전반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뮤지컬의 특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음악에 묻혀 노래 가사가 거의 들리지 않은 것. 무대 장치는 좋았지만 배우들의 노래

연기와 지루한 극 구성에도 냉정한 비판이 쏟아졌다. 불교뮤지컬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후반부는 달랐다. 시작부터 밟고 가 현란한 두드림의 쾌감을 선사했다. 불전사물을 연주하는 4인의 스님에게 관객들이 몰두하며 호응하기 시작했다.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원광 법사의 입적과 다비식. 그나마 강태기, 박웅 등의 베테랑 연기자들의 연기가 극 전체를 빛내는 힘을 발휘했다.

뮤지컬 ‘갯바위’가 첫 공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많은 공연을 통해 버려진다면 해외무대 진출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이다. ■강지연(취재부 기자)

# 개산 1513주년 동화사 개산대제

단했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깨달음이라 부르고, 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산사의 절을 지은 첫 시작을 개산(開山)이라 부릅니다. 금번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개산 1513년을 맞이하여 큰 재(齋)를 올립니다. 옛날부터 재에는 사부대중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참석하셔서 부처님의 묘심(妙心)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산대제 범요식 | 10월 21일(토) · 통일대불광장**

- 극달조사 영정 이운식 (10:00~11:00) 봉서루
- 기념범요식 (11:00~12:30) 통일대불광장

**개산대제 전야제 | 10월 20일(금)**

- 일만 화합의 등 밝히기 탐돌이 및 점등식 대웅전앞마당 (18:00 점등)
- 빛과 소리의 향연 (산사음악회) 통일대불광장 (19:00~21:00) ※ KBS1 문화의달 특집산사음악회 방송예정 -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준비하세요.

**개산기념 문화축제 | 10월 14일~21일**

- 금석문물전 및 탁본체험 - 탁본전시, 외당 조각 작품 전시, 탁본실습, 부적작품 서각 체험, 낙관 새겨주기
- 차와 함께하는 명상 사진전 - 명상사진 100여점 전시, 신라차, 고려차 등 전통차 시음행사
- 불교사진공모전 및 전시회 - 동화사 및 불교소재 작품으로 타 공모전 발표되지 않은 작품 공모 및 전시
- 마음 전하기(엽서쓰기) - 경내에 우체통을 설치, 자신이나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엽서 보내기(엽서 비치)
- 옛길 걷기 및 화해와 상생을 위한 산행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과 천주교 신부님들이 함께 동화사 옛길과 팔공산을 산행하면서 자연과 인간, 종교와 종교간의 화해와 상생의 방안을 모색, 실천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053)982-0101~2